

애 정

테너 존노 리사이틀

20명 한정!

CIELOS TOUR

CIELOS WEEKENTOUR

평창대관령음악제 투어 2022

맑은 산정의 공기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의 만남.
올 해로 19회를 맞는 평창대관령음악제는
'마스크(MASK)'라는 주제로 엔데믹에 걸맞은 성대한
축제로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관령의 청정 자연과 함께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음악축제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7/2(토) ~ 23(토)
- 장소 : 알펜시아 콘서트홀, 알펜시아 뮤직텐트
- 출연 : 손열음, 모딜리아니 콰르텟, 에스메 콰르텟
홍혜란, 최원휘, 임선혜, 알렉산더 멜니코프 외
- 숙박 : 인터컨티넨탈 호텔 또는 홀리데이 인 리조트 호텔
- 예매 : www.clubbalcony.com
- 문의 : 1577-5266

📍 [club_balcony_official](https://www.instagram.com/club_balcony_official)



테너 존노 리사이틀 애정 愛情

Tenor John Noh Recital

2022년 5월 28일(토)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5PM Saturday, May 28

Haeoreum Grand Theater

National Theater of Korea

존노, 테너

John Noh, Tenor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Ilya Rashkovskiy, Piano

CREDIA

안녕하세요 테너 존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콘서트와 리사이틀을 하면서 테너의 다양한 노래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가곡, 그 중에서도 가곡의 기원이자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독일 가곡과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인 ‘정’을 담은 한국 가곡으로 구성된 ‘애정’이 담긴 리사이틀을 준비했습니다.

1부는 독일 가곡(리트 Lied)을 완성시키고 지금까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일 가곡을 알린 슈베르트와 슈만의 가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작곡가가 활발히 활동하던 당시의 독일 문학은, 괴테와 같은 천재적인 작가들로 인해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자리매김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래는 고백할 때, 누군가를 칭송할 때, 일을 하면서 부를 때 등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독일문학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노래는 인생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로 작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와 ‘시인의 사랑’과 같은 연가곡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가곡은 오페라와는 다르게 오로지 목소리와 음악으로 표현되는 예술작품입니다.

2부는 한국 가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가곡은 약 100년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년동안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리듬이 담겨 있는 한국 가곡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시대별로 보여드리기 위해 다양한 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곡이란 장르는 감정과 이야기를 오로지 노래로만 표현한 예술작품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율과 가사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마음속의 무언가를 채워주는 양식이 되는 가곡의 매력.

다 함께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존노

슈만 독일
1810-1856

R. Schumann

시인의 사랑

Dichterliebe Op. 48

- I. Im wunderschönen Monat Mai 아름다운 5월에
- II. Aus meinen Traenen spriessen 나의 눈물에서 꽃이 피어나와
- III.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 IV. Wenn ich in deine Augen seh' 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
- V.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나의 마음을 적시리
- VI. Im Rhein, im heiligen Strome 거룩한 라인 강에
- VII. Ich grolle nicht 나는 울지 않으리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 Schubert

음악에

An die Musik, D. 547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 Schubert

봄의 믿음

Frühlingsglaube, D.686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 Schubert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Die Schöne Müllerin, D.795

- III. Halt! 멈추어라!
- V. Am Feierabend 일을 마치고
- VI. Der Neugierige 호기심이 강한 젊은이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 Schubert

밤과 꿈

Nacht und Träume, D.827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1797-1828

F. Schubert

마왕

Der Erlkönig, D.328

PART 2

김연준 작곡/작사 한국
1914-2008

청산에 살리라

조두남 작곡 한국
1912-1984

뱃노래

석호 시

이수인 작곡 한국
1939-2021

별

이병기 시 1891-1968

이수인 작곡/작사 한국
1939-2021

내 맘의 강물

이원주 작곡 한국
1979-

베를노래

고정희 시 1948-1991

이원주 작곡 한국
1979-

연

김동현 시 1966-

윤학준 작곡 한국
1972-

마중

허림 시 1960-

김주원 작곡 한국
1984-

무서운 시간

윤동주 시 1917-1945

김효근 작곡/작사 한국
1960-

첫사랑

김효근 작곡/작사 한국
1960-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로베르트 슈만
시인의 사랑

Robert Schumann
Die Dichterliebe Op. 48

스승의 딸 클라라를 사랑했던 슈만은 스승의 끈질긴 반대를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1840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곡만 작곡했던 그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곡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연가곡 <시인의 사랑>도 그중 하나입니다. 가사는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의 시집 '서정적 간주곡'에서 열여섯 편을 골랐는데요, 하이네가 실연을 겪은 직후 읊은 사랑의 고통에 크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슈만의 곡은 시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1~6곡은 사랑의 기쁨을, 7~14곡은 실연의 슬픔을 노래하고, 15~16곡은 옛 추억을 회고합니다. 오늘은 이 중 1~7곡을 연주합니다. 1곡 '아름다운 5월에'는 사랑을 느끼고, 2곡 '나의 눈물에서 꽃이 피어나와'는 구애하며, 3곡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은 사랑을 선포합니다. 4곡 '그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노라면'은 사랑을 얻고, 5곡 '나의 마음을 적시리'는 사랑에 타오르는 마음을 노래하며, 6곡 '거룩한 라인 강에'는 연인을 성모상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7곡 '나는 울지 않으리'는 배신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슈베르트에 '리트(Lied: 독일 가곡)의 왕'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인 것은 그에 의해 19세기 예술가곡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의 리트 작곡가였던 요한 슈츠가 1785년에 쓴 글을 보겠습니다. '모든 리트는 민속적 특성을 추구한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되어야 한다.' 즉, 리트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슈베르트의 리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음악에 자신의 이야기를 넣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했죠. 그래서 슈베르트에 의해 리트는 전문연주자가 부르는 '예술가곡'이 되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음악에

Franz Schubert
An die Musik, D.547

친구였던 프란츠 폰 쇼베의 시에 음악을 붙였습니다. 단순한 화음 반주 위에 흐르는 긴 호흡의 선율은 소박하고 순수합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음악은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세계로 이끈다는 내용으로, "고상한 예술이여, 그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봄의 믿음

Franz Schubert

Frühlingsglaube, D.686

루트비히 울란트의 시에 붙인 이 곡은, 봄을 맞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마음의 고통을 잊겠다는 내용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

Franz Schubert

Die schöne Müllerin, D.795

친구의 집에서 발견한 빌헬름 뮐러의 시집 ‘방랑하는 호른 연주자의 유고에 따른 27편의 시’에서 스무 편의 시를 골라 첫 연가곡을 작곡했습니다. 아마도 슈베르트는 이 시를 읽고 짝사랑했던 루이제 헨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 젊은 제분공이 시냇물을 따라 걸으며 방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물레방앗간을 발견합니다. (3곡 ‘멈추어라!’) 그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후 취침 인사를 받습니다. (5곡 ‘일을 마치고’) 그런데 그는 여인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궁금해집니다. (6곡 ‘호기심이 강한 젊은이’) 이후 그녀와 데이트를 즐기고 푸른 리본을 선물하기도 합니다만, 그 여인은 난데 없이 나타난 사냥꾼에 마음이 끌립니다. 이에 젊은 제분공은 실연의 슬픔에 겨워 물레방앗간을 떠나 시냇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프란츠 슈베르트

밤과 꿈

Franz Schubert

Nacht und Träume, D.827

나폴레옹 아들의 교사였던 마테우스 폰 콜린의 시에 붙인 이 곡은 밤의 심상을 꿈과 연결하여 동경하는 내용입니다. 멜로디는 시간이 정지된 듯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화음의 미묘한 변화에는 사람의 마음을 애틋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치는 깊은 밤을 거닐며 꿈을 동경하는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프란츠 슈베르트

마왕

Franz Schubert

Der Erlkönig, D.328

슈베르트는 괴테의 시 ‘마왕’에 감동하여 음악을 붙여 괴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괴테는 이 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안고 급히 집으로 말을 달립니다. 마왕은 그 뒤를 쫓으며 아이를 유혹하고, 아들은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마왕을 두려워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있었습니다. 말을 달리는 듯한 빠른 리듬의 반주와 네 인물의 성격이 뚜렷하게 들리는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노래, 한국 가곡

후반부에는 봄과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가곡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선율로 추억을 돌게 하는 앞 세대의 친숙한 노래부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오늘날의 감성적인 노래까지, 세월이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가곡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김연준

청산에 살리라

한양대학교 설립자이신 김연준 작곡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슈베르트와 비슷한 6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봄도 산 허리에 초록빛 물들었네/세상 번뇌 시름 잊고 청산에서 살리라

봄에 물드는 초록빛 산을 보면 산의 정취를 즐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973년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작곡자는 속세를 잊으려는 생각으로 가사를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명상에 잠긴 듯 읊조리고는, 산을 오르듯 한음 한음 오르는 선율에 자신의 마음을 외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누구나 상쾌한 기분에 감정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조두남

뱃노래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하얼빈으로 이주했던 조두남 작곡가는 해방 후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전쟁으로 피난하여 마산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선구자>를 비롯한 많은 가곡을 남겼죠. 서울에서 작곡된 <뱃노래>는 석호 시인의 시에 붙인 노래입니다.

에야 데야 어서 노 저어라 고향에 가자/아득한 수로만리 고향산천 어디런가

1절에서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너 임을 찾아간다면, 2절에서는 ‘임’이 ‘고향’으로 바뀝니다. 즉, ‘임’은 ‘고향’의 은유이며, 곧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6/8박자의 민요풍으로 노동요와 같은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이수인

별

밤하늘에 별을 보면 누군가 떠오르곤 할 때가 있죠. 현대시조를 개척한 이병기 시인도 별들을 바라보며 수심에 잠깁니다.

저 별은 뉘 별이며/내 별은 또 어느게요/잠자코 홀로서서/별을 헤어보노라

이수인 작곡가는 1968년 10월부터 중앙방송국(KBS) 어린이합창단의 지휘를 맡은 것을 계기로 동요에 남다른 애착이 있었는데요, <동글게 동글게> <앞으로 앞으로>가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1962년에 이병기의 현대시조에 붙인 <별>은 시조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읊조리듯 부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수인

내 맘의 강물

1980년대 초반에 자작시에 붙여 작곡된 <내 맘의 강물>은 2000년대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비바람 모진 되서리/지나간 자욱마다 맘 아파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작곡가는 어떤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나의 삶도 이어집니다. 강물이 졸졸 흘러가는 듯한 셋잇단음표 리듬의 반주 위에, “노래는 자연스럽고 쉬워야 한다”는 그의 지론처럼 소박하고 편안한 선율을 들려줍니다.

이원주

베틀노래

고정희 시인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님과의 추억 한울 한울을 베틀에 걸어 짜며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무심해보여도 그 마음은 얼마나 울적하며 애달플까요!

기다리마 기다리마 기다리마/하루에도 열두 번 끊기는 실이여

감성적인 가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원주 작곡가의 <베틀노래>는 2009년 제1회 세일가곡콩쿠르 우승작입니다. 걱정의 피아노 반주에 마음을 싣고, 노래 선율에 한숨을 짓습니다.

이원주

연(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울 때 그도 나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삶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현 시인의 시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파고듭니다.

그 무엇도 남지 않을 듯/꼭 나를 기억해주오/숨결까지 눈물까지/내 모든 것 그대에게로

이원주 작곡가의 <연>은 2003년 제1회 화천비목콩쿠르 우승작입니다. 차분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극적인 선율이 낭만적인 감수성에 호소력을 더하여 애뜻한 감성을 가슴 깊숙이 스며들게 합니다.

윤학준

마중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윤학준 작곡가는 동요 작곡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만, 허림 시인의 시에 붙인 <마중>으로 2014년 제8회 화천비목콩쿠르에서 1위에 올라 가곡 작곡가로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는 게 무언지/하무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꽃으로 서 있을게

무심한 듯 부드러운 선율이 서서히 감성적으로 충만해져,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달려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연>과 같이 사랑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마중>과 같이 달려가시겠습니까?

김주원

무서운 시간

연희 전문 3학년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만주 용정의 본가로 돌아와 통렬한 절망을 느낍니다. 나라 없는 민족, 죽음조차 무심할 나의 존재... 부름조차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나를 부르지 마오.

2012년 제4회 세일가곡콩쿠르 우승 등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김주원 작곡가는 2019년부터 ‘월간 김주원’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2016년 작품으로, 시에 깊이 새겨진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합니다.

김효근

첫사랑

누군가 첫눈에 반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그대를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곤 하죠.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김효근 작곡가는 이대 경영대 학장님으로, 10대 때부터 키워온 음악에 대한 사랑이 그를 노래 작곡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가곡으로서 ‘아트팝’이라고 부르죠. 그의 <첫사랑>은 편안한 선율에 애뜻한 마음도 보이고 간절한 기도도 들리네요.

김효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제 곧 공연장 문을 열고 나서면 감동의 파도 속에 잠시 잊었던 여러 일이 떠오르겠죠. 마음 상한 일, 괴로운 일, 실망스러운 일... 김효근 작곡가는 슬퍼하지 말라고, 좋은 일들이 올 거라고, 푸슈킨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율에 담아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기쁜 날들만을 생각하시길!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곧 지나버리네/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 작사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곡은 모두 작곡가가 직접 작사했습니다.



CREDIA

테너
존노

John Noh
Tenor

세계적인 오페라전문 잡지 <Opera News>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은 존노는 존스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 성악과를 장학 졸업했다. 이어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학위 장학졸업과 동시에 카네기홀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하였으며,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는 한편 예일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미주활동으로는 메트 라이브 아트 (Met Live Arts)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세계 초연한 <무라사키의 달>에 출연하여 오페라 유망 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카네기홀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엄, 뉴욕 머킨홀, 뉴욕 링컨센터, 앨리스 킬리 홀, 브룩클린 내셔널 소더스트 (Brooklyn National Sawdust) 등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연과 연주로 활약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윌리엄 크리스티와 함께 <몬테베르디의 책>을 노래했다.

국내에서 솔로 연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의 베토벤 <합창>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재개관 기념 공연 <천년의 노래 Rebirth>에서 솔리스트로 참여하였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디토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단, 예술의전당 ‘젊은 예술인 시리즈’, 한국문화재단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등 유수의 단체와 협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데뷔 앨범 <NSQG>(위너클래식)를 발매하였으며 2021년 국내에서 발매된 정통 클래식 앨범 중 최고 기록인 3만장을 돌파해 멀티 플래티넘을 달성하였고 앨범발매 기념으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첫 단독 리사이틀을 전석매진시키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후 올해 3월 발매된 두 번째 앨범 <NSQG2>(위너클래식)에서는 가요, 팝페라, 시티팝,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여 보다 확장된 존노의 음악적 역량을 담았으며 발매 1주일만에 멀티 플래티넘을 기록하였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피아노

Ilya Rashkovskiy Piano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몽티보 크레스팽 콩쿠르 2위, 아서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3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주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8세에 이르쿠츠크 실내악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했으며,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원에서 메리 레벤존 교수를 사사하였고, 하노버의 음악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크라이네프를 사사한 후, 파리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에서 알프레드 코르토틀를 사사하였다. 또한, 오케스트라 지휘와 작곡에 대해 열정을 보이며 도미니크 라우이즈(Rouits)와 마이클 멀렛의 가르침을 받았다.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일본,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투어를 하며 쇼팽과 프로코피예프 리사이틀 연주로 호평을 받았으며, 키예프 국립필하모닉, 굴베키안 심포니, 우크라이나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체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또한 그는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차이코프스키의 사계와 피아노 소나타 앨범을, 알파와 오메가 홍콩 레이블을 통해 모차르트, 쇼팽, 리스트,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환상곡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2019-2020 시즌에는 마린스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발레리 게르기예프),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토 심포니 오케스트라, 죄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안드레이 비엘로우, 김봄소리, 소지 사야카와 앙상블 및 솔로 리사이틀 공연(상트페테르부르크, 상하이, 몬테비데오, 프랑스, 태국)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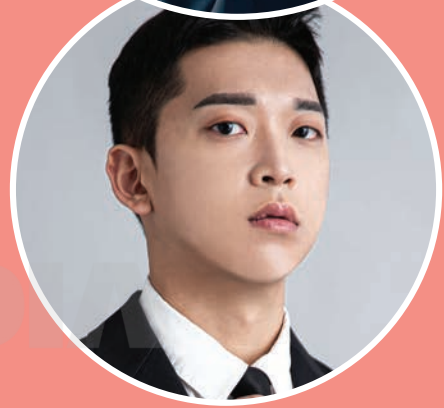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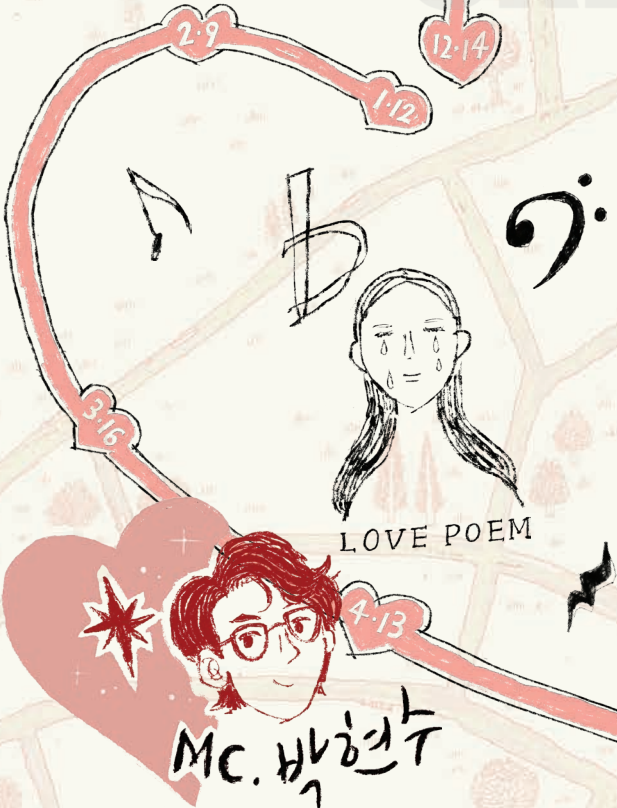
일리아 라쉬코프스키는 홍콩,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며 재능 있는 어린 음악가 양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랑,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CREEDIA
MUSIC & ARTISTS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2022

LOVE SONGS
"세상의 모든 사랑 노래"



6월 '시인의 사랑'

존노 테너 | 정태양 피아노

박현수 MC

6/8 WED 11:30 AM

롯데콘서트홀

주최 CREEDIA MUSIC & ARTISTS

TENOR
JOHN NOH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음악
NOBLE SIMPLICITY & QUIET GRANDEUR

CREEDIA

THE CLASSIC ALBUM



THE CROSSOVER ALBUM



TENOR JOHN NOH RECITAL

ILYA RASHKOVSKIY, PIANO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회원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